

확 달라진 무안공항 면세점... '명품' 거듭난다

새 사업자 (주)국민산업 리모델링해 재개장 다양한 상품·고품격 서비스로 세계화 지향

무안국제공항면세점이 사업자 교체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열고 명품 면세점으로의 비상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지난 2009년부터 무안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온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주)국민산업은 20일 리모델링과 전산프로그램 정비 등을 거쳐 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안공항 면세점은 규모를 떠나 세계화 시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 비치와 세련되지 못한 서비스 등으로 국제공항 면세점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날 정오께 중국 푸둥공항으로 향하는 동방항공의 손님들을 개장 첫 고객으로 맞이한 면세점은 예전보다 더 친절해진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전 사업자가 철수한 지 20여 일 만에 개장을 서두른 것도 공항 이용자들의 불만이 쇠잔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날 면세점 이용 고객들은 담배와 주류, 선글라스 등 여행 필수품을 구입하며 면세점 개장을 반가워했고,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중국 왕래가 잦아 무안공항을 자주 이용한다는 조모(53)씨는 "지난번 찾았을 때 면세점이 문을 닫아 실망감이 컸는데 새로 문을 열었다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확 달라진 매장에 상품도 다양해진 것 같

고 직원들도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니 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다만, 공항의 특성상 관광객이 주를 이루는데 이와 관련한 품목이 적은 점이나 다른 면세점에는 있는 주문·택배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박모(38)씨는 "무안공항이 주로 중국 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중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중국인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명품은 물론이고 한국화장품과 전남 지역의 특색을 담은 특산품을 주력상품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순 무안국제공항면세점 총괄본부장은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의 증가와 조만간 개최될 U대회 등으로 면세점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면세점의 안정적인 조달과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구성으로 국제공항의 면세점다운 명품 면세점으로 모습을 갖추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롭게 단장한 무안국제공항면세점은 담배류와 주류, 기방, 특산품류 등을 판매

하는 110.76㎡의 판매장에 54㎡의 보세창고를 갖추고 있다. 면세점을 운영해왔던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일자로 새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주)국민산업은 앞으로 5년간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5년간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한편, (주)국민산업은 1999년 설립,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주력하는 기업으로 통신망 설치 등 통신네트워크 사업과 완도 해조류 스파랜드를 운영하는 (주)국민통신(회장 윤홍식)의 계열사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일 새롭게 개장한 무안국제공항면세점에서 공항 이용자들이 주류와 화장품 등 면세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39.54 (+18.69)
- ▼ 금리 (국고채 3년) 1.88% (-0.03)
- ▲ 코스닥 713.95 (+7.16)
- ▲ 환율 (USD) 1096.00원 (+7.90)



2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가한 28개 팀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우수 창업팀에 금융 멘토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H-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현대차그룹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앞장선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는 20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단장,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28개팀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 저변확대와 청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대학 총 533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발

된 우수 창업 팀에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되는 벤처창업 지원 네트워크의 범부·기술·특허·금융 멘토링을 제공하고, 현대차그룹의 벤처 플랫폼 및 소셜 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서초 창의 허브'의 창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우수팀 28개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력한 대학생 참가자, 멘토, 심사위원들 모두가 이번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 H-스타트업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미래 창조경제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오너 기업가, 1955년생·이름엔 '영·호'자 최다

CXO연구소, 출생 분석

국내 오너 기업가 중에는 올해 회갑을 맞은 1955년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과 10월 태생이 많았고 6월생과 12월생은 적은 편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오너 기업가가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산 출신이다. 이름 가운데와 마지막 글자로는 '영'자와 '호'자를 많이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과 1개 이상 상장사를 둔 그룹을 포함해 193개 그룹 오너들의 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 오너 기업가 10명 이상 태어난 출생년도

1955년	13명
1953년	11명
1949년	10명

■ 오너 기업가 이름 글자별 최다 사용 현황

성씨	가운데이름 자	마지막이름 자
김씨 40명	영 16명	호 16명
영 8명	영 6명	호 7명

(자료: 한국CXO연구소, 조사대상-193개 그룹 오너 214명)

조사결과 오너 기업가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955년으로 13명이나 됐다.

두산 박용만 회장, 롯데 신동빈 부회장, 한솔 조동길 회장, 한라 정몽원 회장, 오리온 담철근 회장, 빙그레 김효연 회장 등이 1955년생 동갑내기이다.

다음으로는 1953년생이 11명, 1949년생이 10명이다. 최연장자는 롯데 신석호 회장과 샘표식품 박승복 회장으로 1922년생이다. 최연소 오너는 1981년생인 대신증권 양홍서 시장으로 파악됐다.

오너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선 김씨(성(姓)을 가진 기업인이 40명(18.7%)로 최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씨(33명), 박씨(16명), 정씨(14명), 조씨(10명) 순이다. 이름 가운데 글자로는 '영'자를 쓰는 오너 경영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절반인 8명이 '꽃부리 영(英)'자를 썼다.

마지막 이름 글자로는 '호'자를 쓰는 기업가가 16명으로 최다였다. 한자로는 '남을 호(浩)'자가 8명으로 '호경 호(鎬)'자(7명)보다 한 명 많았다. /연합뉴스

내일 DJ센터서 입시 설명회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허승택)는 오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인자산운용에 김미연 본부장(사진)을 강사로 초청해 '다양해진 입시전형 입시도 전략이다'라는 주제로 입시전략 설명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시전략 설명회 강사로 초청된 김미연 대인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입시전략 분석 보고서인 '교육의 정석' 저자로 여의도 증권가 보다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에서 더 유명한 국내 입시 전략 분야의 전문가다.

이번 입시전략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광주 지역 농협은행지점 또는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062)603-6566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박삼구 회장, 中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환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한중우호협회 회장·사진)이 20일 오후 광주에서 방한중인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탕자쉬안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외교부 부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13년 초까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중일우호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 중이다.

박 회장과 탕자쉬안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05년 제4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들과 민간 경제협력과

우호증진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는 등 민간 외교 사절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 회장과 탕자쉬안 전 위원은 2년 전에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중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무출신 여성' 희망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크리미아, 미스전복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510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길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